

| 권두언 |

밝아오는 새해의 설렘으로 활기 띤 사회적 대화를 기대한다

한해가 저물고 있다. 올 한해 경사노위를 둘러싼 다사다난 했던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앞으로 다양한 역사적 평가와 의미 부여들이 이루어질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IMF 외환금융위기 하 노사정위를 둘러싼 논쟁 이래 20여 년 만에 사회적 대화를 중심으로 노동정치가 고도로 활성화 되었던 점이 아닐까 싶다. 그게 무슨 의미 있는 평가냐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사회에서 노동이 사회적 중심 의제로 자리하지 못하고 이런 저런 상황으로 늘 주변화 되었던 점에 비추어 그 놀라운 에너지가 대단히 평가할 만 한 것 아닌가 하는 점이다. 특히 노동을 중심으로 사회적 의제들이 균형을 잡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에너지는 매우 반갑기도 한 것이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안정적 사회적 대화를 기대하기에는 여러 조건들이 성숙되지 못했던 듯싶다.

한편, 지난 10.11.(금) 새로운 위원들로 재구성된 본위원회가 개최된 이후 10.31.(목) 『버스운수산업위원회』와 『보건의료위원회』가 발족하는 한편, 11.11.(월)과 11.22.(금)에는 각각 『양극화 해소와 고용+위원회』와 『공공기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였다. 경사노위가 이번 4개 위원회의 추가 설치로 의제별·업종별위원회 각각 5개씩 모두 10개의 산하 위원회를 두게 된 셈인데 산하 위원회가 10개를 넘긴 것은 전신인 노사정위를 포함하여 발족 2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의제 하나하나가 대단히 중요하니 풍부한 논의와 함께 의미있는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이처럼 이번 송년호는 이른바 2기 사회적 대화의 본격화를 알리는 각 위원회의 출범에 대한 스케치로 시작하였다.



이덕재

편집위원장(경사노위 수석전문위원)

한편,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 <기획 대담>은 송년특집으로 탄력근로 합의를 이끌어 냈던 노동시장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이자 현재 본위원회 공익위원이신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그리고 이덕재 수석전문위원이 “1기 사회적 대화 평가와 2기 사회적 대화의 방향”을 둘러보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철수 교수는 올해 사회적 대화의 태풍의 눈과 같았던 탄력근로 논의의 중심에 있었던 만큼 그동안의 소회와 견해를 걱정에 가까운 심정으로 토로하였다. 대담자들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이견들이 있었지만 국회 등의 처리 방식에 대한 아쉬움을 공감했고 앞으로 사회적 대화의 충실한 협의의 공론장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번 호 <사회적 대화 논단>은 “플랫폼 노동과 사회적 대화”를 다루었다. 올해 가장 뜨거운 주제 중의 하나였던 플랫폼 노동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면서 향후 사회적 대화의 역할을 되짚어 보고자 한 데 따른 것이다. 논단은 네 편의 원고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홍준 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이 “플랫폼 노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플랫폼 노동에 대한 전반적 개념 및 주요 쟁점을 소개하고 있다. 이어 박은정 교수(인제대)가 여성노동의 관점에서 “플랫폼 가사노동, 그리고 사회적 대화”라는 제목으로 플랫폼 가사노동의 주요 현황, 노동법적 쟁점, 그리고 사회적 대화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끝으로 권오성 교수(성신여대)는 “전가(轉嫁)와 은닉(隱匿)의 기술,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제목에서 느낄 수 있듯이 현재의 플랫폼 노동의 본질은 노동 보호의 관점에서 비용을 전가하고 사용자성을 은폐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따라서 공평의 회복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끝으로 강금봉 전문위원이 “플랫폼 노동 관련 사회적 대화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경사노위 산하 의제별

위원회인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에서 플랫폼 관련 논의의 진행 경과와 쟁점들, 그리고 향후 사회적 대화의 역할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시리즈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대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에서는 언론편을 다루었다. 1기 본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했던 신연수 논설위원(동아일보)과 이창곤 원장(한겨레 신문 경제사회연구원장), 그리고 이왕구 논설위원(한국일보)이 참석하여 언론이 지켜봤던 사회적대화의 생생한 입장들을 개진하였다. 대담자들은 대체로 기대가 컸던 경사노위의 출범과 달리 탄력근로 문제로 불안정하게 진행된 점들에 대한 아쉬움들을 토로하였다. 그럼에도 향후 사회적 대화가 양극화 해소 등 시급한 시대적 과제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였다.

이번호 <지역 사회적 대화 현장>은 김은겸 본부장(한국노총 경상남도본부 총무기획본부)과의 인터뷰 내용을 실고 있다. 창원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근 창원 노사정은 창원형 일자리 연대기금을 조성키로 했는데 이를 주도하고 있는 김은겸 본부장의 여러 생각들과 심경을 살펴보았다. 퀘벡 노동연대기금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전세계적인 주목을 끌었는데 한국형 노동연대기금의 탄생을 기대해본다.

끝으로 이번 호 <사회적 대화 국제 동향>에서는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및 덴마크 등 6개 유럽 주요국의 최근 노동동향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2008년 서울에서 처음 개최된 바 있는 『2019 아시아 사회적 대화 포럼』 동향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19.11.12.(화)~13.(수) 이틀 동안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아시아 주요 14개국 사회적 대화 기구 대표단이 한자리에 모여 나라별 과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발전전략에 대해 논의하였고 실천적 선언문 채택으로 이어졌다.

이번 격월간 《사회적 대화》(11-12월호)가 풍성하게 발간될 수 있도록 귀중한 원고를 주신 필자들, 귀중한 말씀들을 해주신 각종 좌담의 패널 및 제작에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사의를 표한다.

또한, 지면을 빌어 한 해 동안 격월간 《사회적 대화》의 발간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새해 인사를 함께 올린다.